WWW.KMI.RE.KR

제 229호 · 2013년 11월 06일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남아프리카 Transnet, 앤트워프와 해사교육 MOU 체결
2. 아제르바이잔, 철도운송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유류 수송 의존도 완화 계획
3. 미 Clean Energy Fuels사, 잭슨빌항에 LNG 연료 터미널 개발계획 공개
4. 인도, 2020년까지 도로화물 20%를 해상운송으로 전환

물류시장동향

1. 중국 란저우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물류 전략지 모색
2. 중국 칭다오항 석탄 연안운송운임 소폭 상승

공지사항

1. 2013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남아프리카 Transnet, 앤트워프와 해사교육 MOU 체결

○ 남아프리카 주정부 소유의 항만운영사인 Transnet이 벨기에 앤트워프 항만당국(PA) 및 APEC (앤트워프/Flanders 항만교육훈련센터, Antwerp/Flanders Port Training Centre)와 MOU를 체결

○ 이 세 기관은 2013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간 남아프리카의 해사교육 훈련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행할 예정

○ Transnet 국영항만공사(TNPA)의 최고경영자인 Tau Morwe는 TNPA의 안전, 보안, 항해의 효율성과 규칙성, 그리고 국제해사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이 해사인력의 지속적인 훈련에 달려있다고 인식
- 또한, 그는 특화된 해사교육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 MOU는 해사 및 관련 분야의 교육시행을 위한 상호 편익 증진의 협력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덧붙여 진행 중인 해사훈련 및 교육은 TPNA가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역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MOU를 통해 TPNA의 경영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

○ 이 훈련 프로그램은 해사규율, 교육자원, 해사기술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
- 첫 번째 내용은 육상과 해상과 관련된 해사규율, 두 번째는 자발적인 파트너와 3자 협력을 통한 교육 자원의 동원, 마지막으로 해사 활동의 안전, 보안, 발전을 촉진시키는 해사 기술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 내용 포함

○ 제공되는 교육 분야, 적합한 교육센터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후보자의 수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결정할 예정
- 의사결정 시 남아프리카의 현행 해사능력구축계획(Maritime Capacity-Building Initiatives)을 고려할 예정
- 후보자들은 Transnet을 대신해서 APEC이 선정한 교육훈련센터에 등록할 계획

자료 : www.container-mag.com, 2013.10.31.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아제르바이잔, 철도운송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유류 수송 의존도 완화 계획

○ 아제르바이잔의 국영기업인 AR(Azerbaijan Railways)이 유류 수송을 위해 300개의 신규 유류화차 구입을 계획
- AR은 향후 건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 및 기존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용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바쿠 열차역에 수리기지 설치를 고려 중

○ AR이 구입하는 신규 유류화차는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바쿠(Baku) 간 송유관을 폐쇄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아제르바이잔이 유류 운송방법을 다양화 하는데 일조
- 러시아는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1,300㎞ 거리의 노보로시스크-바쿠 간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 운송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
- 1996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원유를 바쿠에서 흑해의 노보로시스크항까지 러시아 송유관을 이용하여 수송
- 2013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원유수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에 따라 해당 송유관 사용 여부가 좌우될 전망
- 만약 러시아의 송유관계약 파기가 현실화 된다면 아제르바이잔의 유류 및 가스 수출에 부정적 영향 초래

○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국영 정유회사 SOCAR는 여러 대체 원유수송 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보로시스크-바쿠 루트가 러시아에 의해 차단될 경우라도 국가 유류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확신
- 현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서쪽방향으로 3개의 송유관이 이미 운영 중
- 바쿠에서 노보로시스크 항까지의 수송루트는 아제르바이잔 유류 수출에 사용되는 3개의 송유관 중 하나
- 그루지아의 숩사(Supsa)항까지 연결되는 바쿠-숩사 간 루트는 서방 수출루트이며 터키 지중해 연안의 세이한항까지 연결되는 바쿠-트빌리시-세이한(Baku-Tbilisi-Ceyhan, BTC) 송유관은 남방루트로 불림
- 이 외에도 아제르바이잔은 그루지아를 경유하는 철도를 활용하여 원유를 수출

○ 아울러 AR의 유류화차 구입으로 2014년 개통되는 카르스(Kars)-트빌리시-바쿠 간 철도사업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터키의 연결철도 및 송유관 개발로 아제르바이잔은 남방루트인 BTC를 이용함으로써 대 러시아 수송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터키 북부의 세이한항은 유류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2014년 카르스-트빌리시-바쿠 간 철도가 개통되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바쿠로부터 터키까지 이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확보되며,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이 가능
- 한편, 카르스-트빌리시-바쿠 철도사업은 AR이 새로운 탱크 화차를 구입하여 아제르바이잔 철도화물 운송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극제 역할 수행[1)]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3.10.25.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다른 많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와 같이 아제르바이잔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소련시절 부터 사용하던 중고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AR의 계획은 이러한 낡은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

□ 미 Clean Energy Fuels사, 잭슨빌항에 LNG 연료 터미널 개발계획 공개

○ 미국 Clean Energy Fuels사가 플로리다 잭슨빌 항에 향후 LNG 연료 터미널이 들어설 예상지역 매수계약을 체결

- 미 동부 연안 최초의 해상 LNG 연료 공급 시설로서 Eaegle LNG Partners에 의해 개발되는 첫 번째 사업
- Eagle LNG Partners은 Clean Energy Fuels, GE Ventures, GE Energy Financial Services, Ferus Natural Gas Fuels 등의 기업들이 최근 공표한 컴소시엄으로 미국 내 완전연소 및 저비용 연료 공급을 위해 결성

○ 금번 Eagle LNG Partners 사업으로 잭슨빌 항은 미국 해상운송 천연가스 연료공급에 있어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

- 세인트 존스 강에 위치할 해당 시설은 일일 30만 갤론의 LNG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어 장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산업 LNG 수요에 대응 가능
- 잭슨빌 항을 기반으로 하는 선사들이 푸에르토리코나 버진아일랜드 등 캐리비안 시장 대상 운송에 투입될 LNG 연료 선박의 주문을 늘리고 있어 잭슨빌은 LNG 연료공급의 선두주자로 부각
- 또한 미국 남동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물철도 및 육상트럭에게도 공급 예정

○ 해운산업에서 LNG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

- 대기 중 황 배출 제한 및 미국 영내 200마일 안에서의 벙커씨유 사용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국제대기오염제어 프로그램이 2015년 발효될 예정
- 이에 따라 미 해운산업계는 다른 운송분야와 마찬가지로 선박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려고 노력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3.10.31.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인도, 2020년까지 도로화물 20%를 해상운송으로 전환

○ 인도 정부는 2개의 항만, 8개의 공항, 철도 등의 인프라 시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계획을 수립
- 5% 이하의 더딘 경제성장 극복을 위해, 국민회의당 주도(Congress-led)의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 성장 궤도로의 재진입을 위해 인프라 사업 투자를 결정
- 현재 인도는 산업 및 관광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7,000k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 이며, 40개의 공항 건설 및 시설 보수 작업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
- 이를 통해 경제 성장 가속화, 고용창출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 또한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동성이 원활하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
- 최근, 인도 수상은 정부의 산업 육성 및 경제 부문의 투자 증가와 함께 무역과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정부 승인 절차의 신속화 추진을 언급

○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도로운송 화물의 20%를 해상운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 2013년 8월 1일 코치(Kochi)시(市)에서 개최된 해양 교육 훈련 회담에서 해상 운송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습 및 외항선에 대한 지원이 논의 되었으며, 이 날 항만 장관은 물류산업의 성장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전문 해운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코치시에 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 시작
- 또한, 해상운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현재 도로운송 화물의 20%를 해상운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콜람(Kollam)[2]항에서 코치항까지 연안 컨테이너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2단계로 기타 작은 항만에서도 연안 운송을 개설하여 연안해운 물동량을 증가시킬 예정

자료 : www.transreporter.com, Transreporter : The Complete Group on Logistics Media, Vol.7, Issue 11. 2013.9.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2)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 남부에 있는 도시로 퀼론(Quilon)이라고도 불림

물류시장동향

□ 중국 란저우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물류 전략지 모색

○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여 실크로드 경제지역 협력 모델 구상 방안을 제안하면서 간쑤성 중부에 위치한 란저우 시가 서부시장 개방에 대비한 물류 전략지로의 발전방안을 모색

- 란저우시는 종합보세구와 국제항무구역을 설립하여 란저우에서 수출입 물류의 집하 및 배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
- 아울러 새로 개통되는 제2복선 철도와 란저우와 충칭을 잇는 철도를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철도와 간선으로 연결하여 란저우가 철도 컨테이너 운송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란저우시는 입지적 이점으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진입이 용이

-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 연구원 구쉐밍 부원장은 란저우시의 가공제조업을 기초산업으로 하여 란저우신구[3]를 지역경제발전시범모델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
-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경제지역이 부상되면서 중국의 중서부지역이 중국과 실크로드를 잇는 중요한 전략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중국은 란저우신구를 중심으로 란저우를 물류 전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

자료 : www.chinawuliu.com 2013.11.04.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z, saeii@kmi.re.kr)

□ 중국 칭다오항 석탄 연안운송운임 소폭 상승

○ 칭다오항에서 장자강항, 상하이항, 광저우항 등 연안항만으로 운송되는 석탄의 벌크운임이 소폭 상승

- 10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칭다오에서 장자강항으로 항하는 20,000-30,000 M/T 선박의 평균 운임은 M/T당 63.0위엔(약 10.3달러)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지난주에 비해 M/T당 2.80위엔 상승
- 동기간 칭다오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항로의 경우 40,000-50,000 M/T 선박을 기준으로 M/T당 평균 58.60위엔을 기록하면서 M/T당 0.70위엔 상승하였으며, 칭다오에서 광저우로 항하는 항로는 50,000-60,000 M/T 선박을 기준으로 M/T당 평균요금은 66.0위엔을 기록하면서 M/T당 1.50위엔 상승
- 반면, BDI지수는 10월 23일 1,786에서 10월 30일 1,484까지 낮아져 10월 8일 지수와 비교했을 때 약 30% 하락

자료 : www.platts.com, 2013.10.31.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3) 란저우신구는 란저우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란저우, 시닝, 인저우 3개성이 인접해 있는 중간에 있으며 국가규획건설의 종합교통허브로써 지정되어 있으며 상해, 천진, 충칭, 져쟝 이후 제5신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현대제조업, 창고업, 물류업, 통신업, 장비제조업, 경중공업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입주

□ [공지사항] 2013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 일시 : 2013. 11. 27(화) 14:00 ~ 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내용
  - 미얀마 오일 터미널 사업 및 극동 러시아 슬라비안카 항만 개발 사업 등
  -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및 KMI국제물류위클리에 공지
- 참가신청 : 2013년 11월 13일(수)~11월 26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hongwon@kmi.re.kr, saeii@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이홍원 연구원(☎ 02-2105-2897, hongwon@kmi.re.kr)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i@kmi.re.kr)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 02-6050-3114)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 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 거리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2013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 미얀마, 러시아 –

• 주 최 : 해양수산부
• 주 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일시 | 2013. 11.27 | 수 | 14:0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

■ 참가자 정보

회 사 명			
참가자명(1)		직 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참가자명(2)		직 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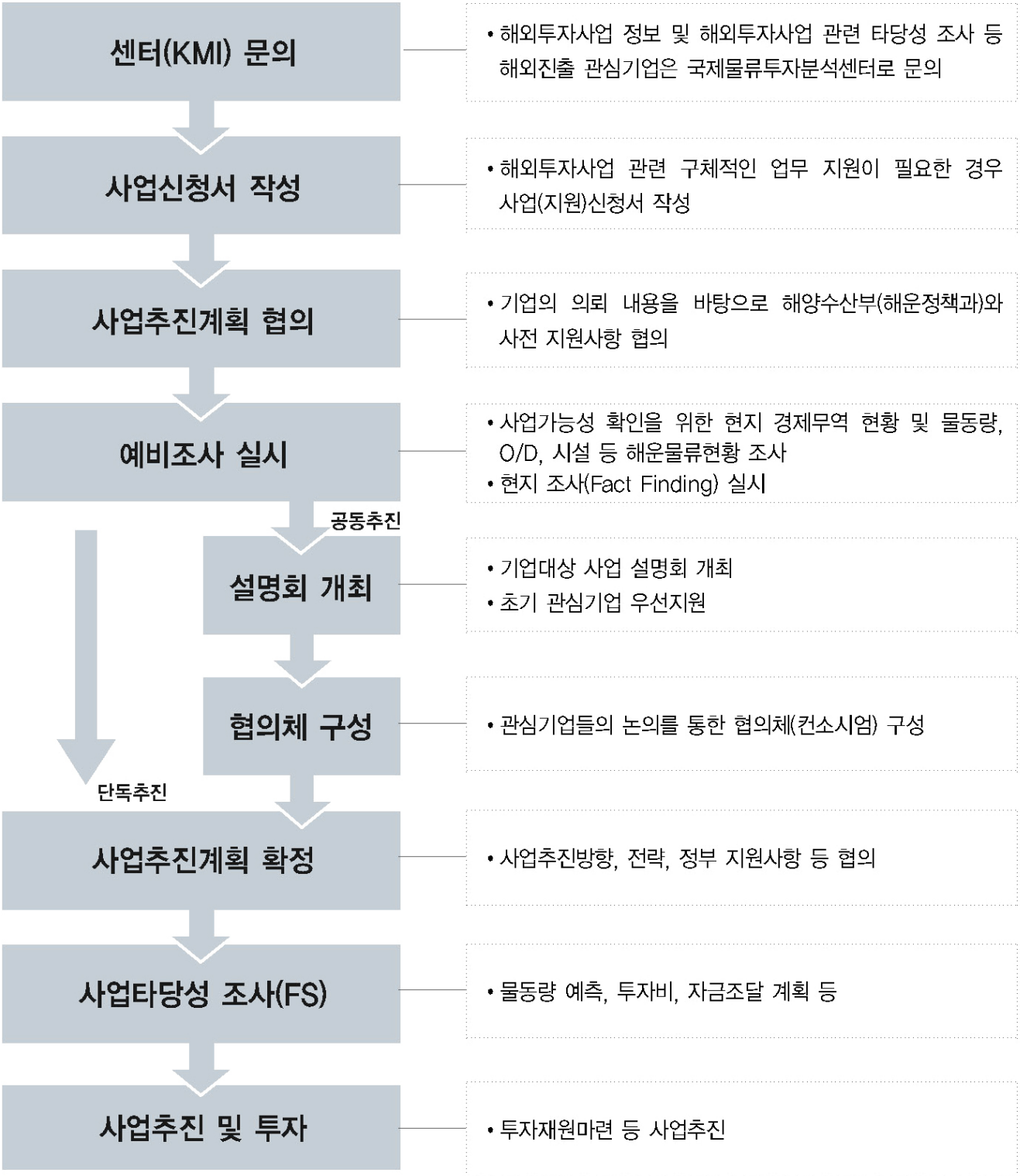
※ 참가자가 더 있을 경우 칸을 만드셔서 참가자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기타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3. 11. 26(화) 18:00까지
- 신청서 송부방법 : E-mail (hongwon@kmi.re.kr, saeii@kmi.re.kr)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